곤도보 - 순면 얼룩실 생산을 강화

곤도보는 일본의 섬유시장에서 판매되는 면사를 생산하는 큰 방적회사중의 하나로 잘 알려져 있는데, 최근 특수사인 순면 얼룩실의 생산을 강화하고 있다. 곤도보는 정방기(대당 960추) 3대의 2,880추에, 얼룩을 만들어주는 컴퓨터 제어(制御)장치를 달아 7 38수까지의 순면 얼룩실을 생산하여 상품화하였다.

얼룩실은 장식사(裝飾絲)의 일종으로서, 정방기에서의 드래프트를 변화시키거나 조그만 섬유알을 수시로 드래프트존(zone)의 섬유 속에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의 굵기를 의식적으로 균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의 굵기에 요철(凹凸)을 준 실이다. 이 실은 진즈 시장에서의 수요량이 매우 많은데, 캐주얼 소재, 니트 소재 외에 셔츠 시장에서도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. 이와 같이 수요가 증가하자 곤도보는 작년 말부터 태번수에서 중번수까지 5 6종의 얼룩실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진즈, 팬츠, 셔츠감, 니트감 분야에 공급하고 있다.